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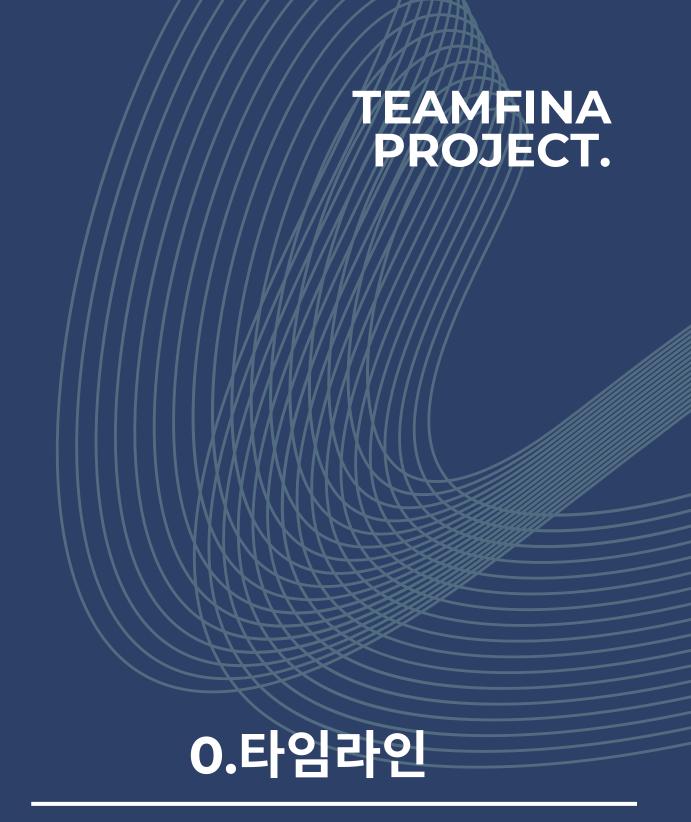
BRITY RPA.

TEAM FINA PROJECT REPORT

Prepared by KIMBUMJIN/JOSUA <u>/KIMSUIN/KIMD</u>AEWON

CATE GORY

- 타임라인
 - 두산 통계
 - **2** 삼성 SDS 통계
 - **3** GS리테일 통계
 - 4 현대오토에버 통계
 - 5 효성그룹 통계
 - 6 한화그룹 통계
 - 7 삼양그룹 통계



TIMELINE



단위:억원 2022-2024년

DOOSAN (2022-2024)

490,590 (단위:억원)

| 연도 | 회사명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영업이익 | 세전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4 | 두산 | 129,331 | 107,618 | 21,713 | 7,948 | 6,121 | 3,473 |
| 2023 | 두산 | 191,301 | 158,851 | 32,451 | 14,363 | 4,510 | 2,721 |
| 2022 | 두산 | 169,958 | 141,577 | 28,380 | 11,260 | -2859 | -5812 |





두산 자체 사업으로 2024년 2분기 매출 3,251억 원, 영업이익 3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1%, 64.8%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자 비즈니스 그룹(BG)의 실적 개선에 의합니다. 두번째로 두산에너빌리티 2024년 2분기 매출 4조 1,505억 원, 영업이익 3,0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6%, 영업이익은 37.4% 감소했습니다. 세번째로 두산밥캣은 2024년 2분기 매출 4조 1,505억 원, 영업이익 3,0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6%, 영업이익은 37.4% 감소했고, 두산로보틱스 2024년 2분기 매출 144억 원, 영업손실 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으나, 연구개발 비용 증가로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두산퓨얼셀은 2024년 2분기 매출 865억 원, 영업이익 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5.9%, 488.9% 증가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 무화제도(RPS)와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에서 수주한 프로젝트의 주기기 공급이 진행되며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두산은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들어 2분기와 3분기 실적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3분기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실적 부진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두산밥캣의 실적 악화와 전반적인 수요 둔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두산은 전자BG의 하이엔드 제품 매출 확대와 두산퓨얼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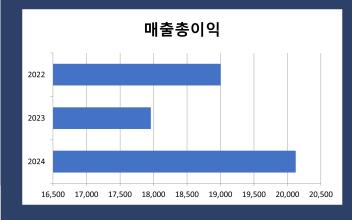
프로젝트 납품 등을 통해 실적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PA PROJECT. -5-

SAMSUNG SDS (2022-2024)

443,397 (단위:억원)

| 연도 | 회사명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영업이익 | 세전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4 | 삼성SDS | 138,282 | 118,158 | 20,123 | 9,110 | 11,027 | 7,895 |
| 2023 | 삼성SDS | 132,768 | 114,806 | 17,961 | 8,082 | 9,855 | 7,013 |
| 2022 | 삼성SDS | 172,347 | 153,341 | 19,005 | 9,160 | 11,320 | 11,3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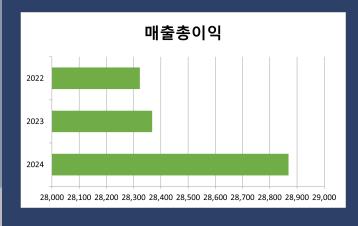


삼성 SDS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손익 계산서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기준으로 분석해 본 결과, 2022년 삼성 SDS는 17조 234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6% 증가한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클라우드 사업 매출은 1조 1627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2023년의 경우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전년 대비 23%가 감소한 13조 2768억 원을 기록하는데 그쳤으나 클라우드 사업은 전년 대비 61.8% 성장한 1조 880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2%로 소폭 증가한 13조 828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클라우드 사업 매출은 2조 323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23.5% 정도의 성장 폭을 보였습니다. 사업 부문별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클라우드 사업의 경우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CSP 사업과 MSP 사업에서 고른 성장 폭을 보였으며 대구센터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개시와 금융, 공공 업종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매출 증대를 이루었습니다. 디지털 물류 플랫폼 첼로스퀘어 사업의 경우 지능형 공급망 관리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며 24년 4분기 전년 동분기 대비 27% 성장한 30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플랫폼 가입 고객은 19400개 사를 돌파하는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산업의 경우 CES 2025에서 BRITY COPILOT의 세계 최초 3개 이상 언어 동시 통역 번역 회의 서비스, 패브릭스의 멀티 에이전트 기능, 국내 1위 업무 자동화 솔루션인 BRITY AUTOMATION 등을 소개하며 고도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시장 조사기관 IDC의 2023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삼성 SDS의 국내 MSP 산업 부문에서 마켓 셰어 보고서 1위를, 국내 CSP 산업 부문에서 마켓 셰어 보고서 2위를 기록하며 시장 평가에서도 삼성 SDS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선도한다는 평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는 최근 이사회 결의로부터 3개년 배당 정책에 근거하여 배당안을 배당 성향 30% 수준에 해당하는 주당 2900원의 금액으로 설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삼성 SDS는 클라우드 사업과 디지털 물류 플랫폼 성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 증대에 성공하였으며 생성형 AI 서비스 등의 신기술 도입을 기획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계획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

GS RETAIL (2022-2024)

337,929 (단위:억원)

| 연도 | 회사명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영업이익 | 세전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4 | GS 리테일 | 116,269 | 87,400 | 28,869 | 2,391 | 112 | 98 |
| 2023 | GS 리테일 | 111,341 | 82,974 | 28,368 | 2,918 | 611 | 221 |
| 2022 | GS 리테일 | 110,319 | 81,996 | 28,323 | 3,602 | 2,117 | 47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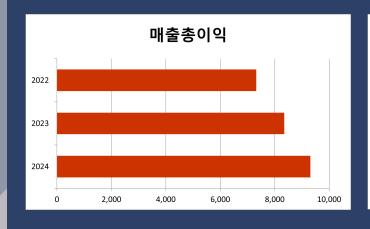


GS 리테일 편의점 부문에서의 2023년 매출액은 8조 2,456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71%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편의점 수요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슈퍼마켓 부문(GS더 프레시)는 2023년 매출액은 1조 4,4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가맹점 위주의 신규 점포 증가와 퀵커머스 사업 개시에 따른 영향입니다. 2024년 허서홍 부사장이 GS리테일의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GS그룹 오너 4세로서, 유통 사업의 책임을 맡게 되었고, 이러한 사업 구조로 인한 조정으로 GS리테일은 비주력 사업인 GS프레시몰과 텐바이텐 등을 정리하고, 오프라인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 긍정적 평가로는 GS리테일은 202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GS리테일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4분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등 실적 둔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부진과 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GS리테일은 오프라인 경쟁력 강화와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 실적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 CNS (2022-2024)

165,575 (단위:억원)

| 연도 | 회사명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영업이익 | 세전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4 | LG CNS | 59,826 | 50,513 | 9,312 | 5,128 | 4,854 | 3,649 |
| 2023 | LG CNS | 56,053 | 47,704 | 8,348 | 4,640 | 4,426 | 3,323 |
| 2022 | LG CNS | 49,696 | 42,376 | 7,320 | 3,853 | 3,648 | 2,649 |





LG CNS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2022년 매출액은 4조 9,697억 원, 영업이익은 3,854억 원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매출액 5조 6,053억 원, 영업이익 4,6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7%, 10.5%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는 매출액 5조 9,826억 원, 영업이익 5,1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7%, 10.5% 증가하며 5년 연속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와 AI 분야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5.8% 성장, 실적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LG CNS의 디지털 전환(DX) 핵심 사업인 클라우드, 스마트 물류, 차세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구축 등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결과입니다. 또한, 글로벌 ERP 기업 SAP와의 협업을 통한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이 순항 중이며, AI 분야에서도 자체 솔루션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5일 상장 첫날, 공모가 6만 1,900원에서 시작한 주가는 5만 9,700원으로 하락하며 다소 부진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는 최근 IPO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와 투자 심리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CNS는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AI 분야 인수합병, 부채 상환,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HANDAIAUTOEVER (2022-2024)

83,645 (단위:억원)

| 연도 | 회사명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영업이익 | 세전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4 | 현대오토에버 | 25,450 | 22,819 | 2,721 | 1,518 | 1,605 | 1,235 |
| 2023 | 현대오토에버 | 30,650 | 27,258 | 3,392 | 1,814 | 1,817 | 1,403 |
| 2022 | 현대오토에버 | 27,545 | 24,547 | 2,998 | 1,424 | 1,548 | 1,162 |





현대오토에버는 김윤구 대표 취임 이후 기술 및 재무 역량을 강화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한 티맵 개발을 주도한 조현준 SW개발센터장과 디지털 전환(DX) 전문가 김지현 상무를 영입하여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인 매출 및 이익 성장을 이루었으며, 특히 IT아웃소싱(ITO) 부문에서는 2024년 4분기에는 전년 5,57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그룹사 IT 운영 관련 매출 증가와 국내·외 커넥티드 카 서비스(CCS) 운영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차량 소프트웨어(SW) 부문으로는 2024년 4분기 매출액은 2,2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및 북미 지역 내비게이션 물량 증가와 '모빌진 클래식' 등 제어기 전장 SW 확대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인 매출 및 이익 성장을 이루었으며, 특히 2024년 4분기에는 분기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IT 아웃소싱과 차량 소프트웨어 부문의 고른 성장과 기술 역량 강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기술 혁신과 인재 영입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YOSUNG (2022-2024)

78,393 (단위:억원)

| 연도 | 회사명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영업이익 | 세전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4 | 효성그룹 | 22,728 | 17,531 | 5,196 | 2,211 | 1,819 | 4,843 |
| 2023 | 효성그룹 | 18,472 | 15,186 | 3,286 | 577 | 181 | -4 |
| 2022 | 효성그룹 | 37,193 | 33,440 | 3,754 | 649 | 209 | 248 |





효성티앤씨는 글로벌 스판덱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및 중국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였으며, '리젠(REGEN)' 브랜드를 통해 재생 원사를 활용한 친환경 섬유 제품 라인을 확장하였습니다. 2023년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으나, 2024년 2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영업이익이 31.2%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스판덱스 생산 능력 확대와 친환경 섬유제품 개발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성첨단소재는 전주공장에서 탄소섬유생산라인을 증설하여 연간 생산량을 기존 6,500톤에서 9,000톤으로 확대하였으며, 한화솔루션과약 1,600억 원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수소 차량용 연료탱크 보강에 사용되는 고강도 탄소섬유를공급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ESS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관련 기술개발 및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전력설비 및 건설 프로젝트를수주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였습니다.효성화학은 2024년에 약 1조 원 규모로삼불화질소(NF3) 사업부를 매각하여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으며,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PP 생산 설비를 확장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효성의 매출액은 3조 7,1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649억 원으로 89.8% 감소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도 248억 원으로 95.4%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중공업 부문을 제외한 주요 계열사들의실적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HANHWA (2022-2024)

74,442 (단위:억원)

| 연도 | 회사명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영업이익 | 세전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4 | 한화시스템 | 28,037 | 23,879 | 4,158 | 2,193 | 5,814 | 4,454 |
| 2023 | 한화시스템 | 24,525 | 21,484 | 3,041 | 1,226 | 4,439 | 3,431 |
| 2022 | 한화시스템 | 21,880 | 19,326 | 2,554 | 391 | -420 | -8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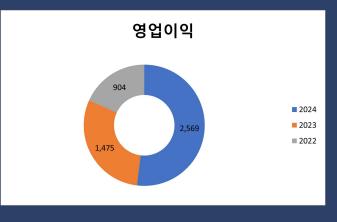
한화그룹은 2022년에는 약 28조 6,000억 원으로 매출액이 증가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불안정 등의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는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었고, 매출총이익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비용 상승이 영업이익에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건설 부문과 태양광, 화학, 방산 등다양한 사업 부문에서의 매출 성장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는 2022년부터 2023년동안 전반적으로매출 성장을 기록했지만, 2024년에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일부 주요 사업 부문에서의 수익성악화로 매출 및 이익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태양광 사업 및 이차전지 사업 부문에서의어려움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룹 전체적으로 방산, 화학, 건설 부문에서 안정적인 실적을올겼고, 일부 부문에서는 원자재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통해 매출총이익을 어느 정도방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4년에는 매출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사업 구조 조정 및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SAMYANG (2022-2024)

33,511 (단위:억원)

| 연도 | 회사명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영업이익 | 세전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4 | 삼양 | 12,492 | 7,021 | 5,471 | 2,569 | 2,560 | 1,956 |
| 2023 | 삼양 | 11,929 | 7,762 | 4,167 | 1,475 | 1,563 | 1,266 |
| 2022 | 삼양 | 9,090 | 6,578 | 2,512 | 904 | 1,020 | 803 |





삼양그룹은 2024년 10월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변화와 혁신을 통한 성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면스낵사업부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78% 증가한 3,545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주력 수출 품목인 불닭볶음면의 해외 매출 증가에 기인합니다.

또한, 삼양그룹은 2024년 그룹 조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경영 성과와 하반기 전략을 공유하였습니다. 김윤 회장은 스페셜티 제품 중심으로 매출을 확대하고, 알룰로스 신공장의 상업 생산 시작과 헝가리 봉합사 공장의 안정화 등 글로벌·스페셜티 사업 확대를 위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삼양그룹은 앞으로도 스페셜티·글로벌 중심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캐시플로우 중심 경영,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ALL

최근 3년간(2022~2024년) 국내 주요 대기업의 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삼성과 두산이 각각 490,590억 원과 443,39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업계 선두를 차지했 반면, 업종별 성장률에는 차이가 나타나며 기업별로 상이한 실적 흐름을 보였다.

특히, 삼성은 490,59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국내 기업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사업 부문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전체 매출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업황의 변동성이 존재했지만, AI 반도체 및 차사메모리 시장에서의 선전이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두산 역시 최근 신재생에너지 수소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443,397억 원의 매기록했고,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원자력 및 발전소 사업의 수주 증가가 실적 개선에 기여했이는 전통적인 산업군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GS리테일 2022~2024년 동안 337,929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유통업계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온라인 및 O2O(온.오프라인 연계)사업 확장과 편의점 및 슈퍼마켓 부문의 지속적인 성매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현대오토에버는 178,395억 원의 매출을 기록 IT와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대.기아의 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며, 차량용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AI)기반

시스템 강화에 집중한 것이 매출 증가 및 기술 기반 사업의 확장을 보여주었다. 효성은 83,645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했고, 글로벌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존재했지만, 효성티앤씨와 스판덱스(섬유 소재) 부문과 효성중공업의 전력.중공업 부문이 실적을 뒷받침하면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끌었다. 다음으로 전통 제조업 강자인 화하고록은 74,443억 위의 민출은 단선하면 반사사업 및 시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꾸준하

한화그룹은 74,44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방산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한화디펜스의 해외 수주가 증가한 것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태양광 및 수소 에사업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한편, 삼양그룹은 33,51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식품 및 화학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갔다. 특히, 삼양식품의 대표 트'불닭볶음면'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해외 매출이 증가했고, 삼양바이오팜을 중심바이오. 의약 사업에서도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2022~2024년 동안 국내 주. 기업들의 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각 기업들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성장률에서 차이를 보였

특히, 기술 기반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및 방산 기업들은 시장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소비재 기업들도 온라인 시장 확대를 통해 실적 개선을 이루고 있다. 향후 글로벌 경기 변동성,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정책 등이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높은 가운데,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친환경 기술 개발, 신사업 확장 등의 전략을 통해 지속적 성장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WARDIERE INC.

CONT ACT US

- 123-456-7890
- projectfifi@brityrpa.com
- 123 Anywhere St., Any City
- www.projectfifi.com